

# 생태주의의 인식론적 비교: 성리학과 운화론을 중심으로

김정태 · 이성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및 조경·지역개발연구소 교수

## The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s on Ecologism: Applications of Sung Confucianism and The Silhak

Kim, JeongTae · Lee, Seong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egional Development & Institute of Regional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Silhak as a Korean epistemology,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Silhak in Korean society, and to discover further environmental implications. The main discussion of this paper concerns with the epistemology of environmental philosophy. Epistemology is based on the justification of certain knowledge and social philosophy. Epistemology, from the Greek words episteme (knowledge) and logos (word/ speech) is the branch of philosophy concerned with theories of the sources, nature, and limits of knowledge.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epistemology has been one of the fundamental themes of philosophers, who were necessarily obliged to coordinate the theory of knowledg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hought. It is a general belief that Western ideology is substantially embedded in Eastern ideology due to physical and metaphysical colonial involvement. We argue that ecological crisis may be resulted from western epistemological mechanical view, thus we suggests a Korean epistemology as an alternative. In this paper, we seek possibility of epistemological alternative of nature in the Korean traditional epistemology incorporating the epistemology of Sung confucianism and The Silhak.

**Key word** : epistemology, ecologism, Sung confucianism , Silhak, Wunhaeron.

### 1. 서 론

생태주의의 출현은 물질문명중세의 서구 산업화에 기초한다는 것이나, 근본적 원인은 서구문명이 기초한 인식론적 한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생태위기에 대해 많은 환경 철학자(생태철학자)들은 그 위기의 원인으로 서구의 인간중심적 지배적 세계관과 그에 따른 물질적 진보의 개념을 주저 없이 꼽는다(한면희, 1994: 329). 그런데 인간중심적 논의는 존재론적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설정에 있다. 인식론적 논의에서 서양은 인간과 자연을 존재론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파악하며, 인간을 인식

주체로 파악한다. 반면 동양의 관점은 인간과 자연을 존재론적으로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는다.

인간이성에 대한 낙관과 자연을 대상화시켜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인식론적 방향은 자연지배와 이용의 정당성을 인간에게 주었고, 능동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연보다 우위에 있는 시각으로 설정되며, 자연은 존재론적으로 다른 대상, 물질적 존재로서 파악된다. 반면 동양의 관점에서 자연은 인간과 존재론적으로 다른 대상이 아니며, 자연을 물질을 넘어선 정신적 작용을 하는 존재로 파악된다. 따라서 서구의 인식론적 틀 속에서 자연이용의 폐해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설정되기에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로 파악되지 않지만, 동양의 관점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면에서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서구의 생태개

Corresponding author : Lee, Seong-Woo

Tel.: 02-880-4744

E-mail: seonglee@snu.ac.kr

념에 대한 논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계획분야에서도 생태개념은 지속가능성 및 생태도시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계획분야에서 명확한 생태적 개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의 공간적 적용이 환경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현재 생태개념의 계획적 적용은 자국의 인식론적 논의에 기초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 개발된 생태개념의 연역적 적용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고유한 인식론의 흐름 속에서 생태개념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May(1971)의 연구에서 보여지듯 지역개발분야에 서구의 시각이 많이 침투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개발 인식론의 주류적 흐름이 우리의 인식론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동도서기적 관점을 넘어, 서도서기적 방법론이 사용되어 왔음을 의미하며 생태개념 또한 위와 같은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새로운 인식론의 전개는 기존의 인식론 상에서 전제된 여타의 지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민족과 개인은 없으며, 계획상에서도 사회적 인식론과 부합해야 그 논의의 담론이 깊어 질 수 있고, 이에 실천성은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생태개념의 한국적 인식론적 전통에서 고찰은 계획의 실천성과 지역개발의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 가치관이 혼재된 사회적 실재 위에 주류적 지적전통을 설정하는 것은 통사적 관점에서 사리에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서구의 인식론적 한계에 대한 지적은 동양의 가치관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동양적 인식론 흐름의 표현형인 우리의 인식론적 논의는 중요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인식론은 사고의 틀로서 인간, 자연 등에 대한 가치관의 근간이며, 이를 통해 배태된 문화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인식론은 연속된 영향력을 가지며, 타 문화소를 흡수하여 융합하는 본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인식론과 관련된 담론의 논의는 '전통인식론의 설정'에 있다. 전통적 인식론에 기초한 계획분야의 생태개념에 대한 연구들은 풍수와 관련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풍수의 한국적 변형으로 주로 예를 드는 것은 택리지 등에 기초하고 있다. 풍수는 주역에 기초하고, 택리지는 유교적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sup>1)</sup>은 논의의 기초가 성리학적 인식론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계획의 실천적 방향설정을 위한 이들의 논의는 포괄적으로 성리학적 인식론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성리학이 주위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사실

1) 환경결정론적 사고에서 양반의 주거개념에 대한 논의라 볼 수 있다.

은 전통적 가치관의 논의가 유교에 기초한 오리엔탈리즘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성리학 논쟁의 역사가 한국사에서 다른 발전을 영위했다는 논거들은 역사적 실체로서 전통적 지적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적흐름의 또 다른 축은 실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실학=반봉건'이라는 테제에서 출발하는 실학은 최근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성리학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움직임이 역사 속에 실재하였고, 실학자인 최한기는 기 중심의 인식론을 통해 성리학적 패러다임과 다른 사상체계를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리학과 최한기의 사상 속에서 전통 인식론을 개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체계에 준 영향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문화 및 역사 속에서 탄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성리학자들 및 최한기 모두 역사적 개인으로서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견해이기에 전통적 인식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들의 사상은 조선이라는 역사적 상황맥락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적 인식론에 기초한 생태개념의 도출을 위한 기초적 논의로서 성리학과 최한기의 운화론에 바탕을 두고 서구 생태개념과의 차이를 인식론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의의 중심은 인간과 자연과의 존재론적 의미규명과 욕망에 근거한 개발의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계획적 관점에서 생태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장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서구 인식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4장과 5장은 성리학과 최한기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태개념과 관련된 인식론의 논의를 고찰하였으며, 6장은 이상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 II. 선행연구의 인식론적 비판

전영욱 등(2004)은 생태도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접근방식에 있어 생태도시 혹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이상적 개념에 입각한 일반모형을 설정하고서 어느 국가 및 도시에서도 적용 가능한 보편화된 계획지표를 연역식으로 제시하였

2) 김용욱(1990)은 실학개념의 허구성을 말하고 있고, 한영우 등(2006)의 논의에서는 실학개념의 해체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김용욱(2004)은 '측인에 나타난 혜장의 생각'을 바탕으로 실학개념의 역사서술적 개념의 반성과 실학이라는 문자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의미의 동시성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통해 실학개념의 허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 외국에서 논의되는 가장 앞선 개념이나 지표를 종합함으로써, 즉 장점의 집합체로서 생태도시모형을 제안함으로써 현재 한국도시 환경과의 괴리감을 확대시켰고, 외국도시의 생태 기술적 선진성에 경도되면서 우리 도시가 지닌 생태적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전영옥·이상문, 2004: 8-9).

위의 논거는 생태개념의 한국적 적용의 실태를 보여준다. 생태개념의 계획적 적용인 생태도시와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생태개념의 한국적 정립’의 문제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생태개념에 대한 한국적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기보다 실천방향으로서 생태도시 모형의 구체적 계획원리를 모형에 입각하여 제시한다. 모형은 개념의 정립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태개념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여타의 모형 및 지표는 현실과 괴리된 면을 보여줄 뿐이다. 즉 외국을 포함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판없는 연역적 추론과 적용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 문제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생태적 개념의 인식론적 논의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존의 인식론적 체계가 상정하는 전제를 그대로 답지한 채,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향의 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의 정립이 체계 되어야 하며, 계획적 실천방향의 모형, 지표들과의 관계는 용의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개념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식론은 지식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으로, 지식을 만들어 가는 체계이다. 인식론적 관점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세계원리의 이해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서구와 동양은 자연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의 기초가 다르다<sup>3)</sup>. 경험론과 합리론의 논의의 기초가 존재론으로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는 반면, 동양은 자연과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sup>4)</sup>. 박상환(2002)은 자연에 대한 서양철학의 근간을 ‘현존재의 실존’, ‘본질’에 대한 실체론적 설명으로, 중국철학은 유기체적 설명인 관계성으로 본다. 즉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관계론으로 유기체적 입장에 있고, 서양의 관점은 자연과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다른 개체로서 파악한다.

3) 홍윤순(2002: 19)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유로 치환하면서 서구사유의 근간을 실체론으로, 동아시아 사유의 근간은 관계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리기의 개념으로 볼 때, 인간과 자연(모든 개체)들은 이일분수와 기일분수의 입장에서 동일한 질료를 전제.

생태개념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설정에 있다는 점에서 서구와 동양의 위와 같은 인식론적 관점의 차이는 생태개념이 우리의 사고에 기초할 경우 서양과 다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동양의 사고는 자연과 인간의 존재론적 근원을 동일시하는 반면 서양의 경우는 개체의 존재론적 차이를 인정하는 사고를 견지한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분리의 관점이 서양에서 중시된다면, 동양적 사고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통합을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생태개념의 핵심적 내용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흔히 사용되는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 및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 표현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일 뿐, 보다 면밀한 의미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독립된 개체로서 상호관계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존재론적 동질성의 의미로 그 내용은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과연 서양은 자연에 대한 존재론적 분리에 따라 자연을 물질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는가의 문제인데, 자연법사상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인간의 도덕적 근원을 서양의 경우에도 자연철학에서 그 내용의 본질을 찾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악의 근원으로 자연을 준거로 삼는 동양의 사상과 내용적 표현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양에서 논하는 자연은 자체로 주어진 실체가 아닌 창조주에 의해 부여된 것이며, 자연적 속성은 바로 창조주에 의해 제공된 질서를 논하는 것이다. 반면 동양적 자연은 무신론적 관점에서 존재생성의 근원을 자연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법천도 입인도(法天道 立人道)’의 자연법적 의미를 서양의 인식에서도 찾을 순 있으나, 그 의미체가 다르다.

이상과 같이 자연과 인간과의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인식론에서 생태개념을 찾아보는 시도가 어려운 것은 것은 근대성의 기준이 서양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전통적 지적흐름의 전통을 찾는 과정 또한 어렵게 하는 점이다. 최한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실학개념을 통해 설정된다. 주된 경향은 기학을 완성했고, 경험주의적 연구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근대성의 개념이 서구의 가치에 의해 지워지면, 기를 중심으로 개체사물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연과학적 인식토대를 완성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박종홍(1965)의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고, 현재의 대다수의 학자들 또한 최한기를 경험주의자로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다. 그러나 경험주의자로서 최한기는 김용옥(2004)의 경험개념을 통해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최한기의 기학적 체계가 경험주의자이며, 근대적 인식론을 전개했다는 것보다 리중심의 성리학적 패러

다임을 기로 변화시켰고, 기존의 성리학자들과 달리 기중심의 인식적 체계를 사상전체에 전반에 흔들림 없이 개진한다는 점이다. 서경덕, 임성주와 장재는 그에 앞서 기중심의 인식론을 논파했으나, 서경덕과 임성주는 본성과 관련하여 리중심으로 회귀하였으며, 장재는 최한기와 자연에 대한 본성의 파악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인다. 박희병(2003)은 최한기 사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최한기의 사상사적 맥락이 조선후기의 사회적 환경을 근간으로 서양의 철학적 영향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이다. 즉 그는 성리학적 기학을 바탕으로 서구철학을 융합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인식론적 혼란과 동일한 사회적 실재를 보인다. 따라서 서구 물질문명과 동양적 유기체적 관점의 공존을 그에게서 볼 수 있다. 성리학적 관점에서 부정하는 욕망(인간생존의 필요에 의한 것)을 긍정했다는 점에서 개발행위와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볼 수 있는 사상적 내용을 견지하고 있다.

### III. 서구 인식론을 통해 본 지속가능성과 생태개념의 한계

본 장은 서구 인식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및 생태사상을 인식론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및 생태주의에 대한 서구적 한계와 장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적 시각을 통해 성리학 및 운화론을 바탕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티브로 하는 생태개념은 지속가능성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생태도시 또한 지속가능성의 계획적 적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브룬트그란드에 제시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그 내용을 보면<sup>5)</sup>,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와 현 세대의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욕구충족을 의미한다. 김홍순(2005)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의 다의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 의미를 포괄성, 형평성, 안전성, 신중성, 연결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의미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대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은 미래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프레임웍<sup>6)</sup>으로 간주되고 있고, 비판적 입장에서 신세계질서를 노정하기 것<sup>7)</sup>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논

의들의 공통적 시각은 개발과 발전을 지속가능성의 의미 속에 내포하고 있다. 자연이용관점에서 형평성을 전제로 한 개발을 용인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인간에 의한 영원한 자연의 사용과 개발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인간의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정당성 확보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용적 면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준은 인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개념이 설정되어있다. 생태주의 입장에서도 기술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sup>8)</sup>는 결국 인간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대한 관점이며, 도구적 이성에 의한 끊임없는 자연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에 있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언급 또한 인간의 필요와 이해만을 자연에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태주의의 경향은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이중 가장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심층주의 입장을 보면, 개체론적 자연지배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정치경제, 과학기술을 포괄한 사회와 문화의 기본구조 자체를 바꾸는 이러한 변화는 생태의식을 계발해 ‘인간, 동·식물, 지구의 통일성’을 깨닫는 ‘생태적, 철학적, 영성적 접근’이라고 주장한다(한면희, 1994: 150). 이들의 주장은 생명평등사상이다. 무생물과 같이 생명이 없는 자연적 개체의 무분별한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 결국 심층생태주의 입장 또한 생명의 관점에서 인간과 타종들을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인간과 각종들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생태주의 사상의 인식론적 존재론의 의미는 생명일 뿐, 생명을 넘어선 자연적 존재의 대상으로 그 영역을 확대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존재적 의미에서 자연은 생물과 무생물을 총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부분만의 생태개념설정으로 국한된다. 결국 이들의 사상은 본래적 의미인 인간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 인식론의 특성은 주체와 개체의 분리와 신에 의한 자연지배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으로 이러한 점은 해석될 수 있다. 신에게서 부여 받은 권능을 인간이 부여받았다는 점은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7) Willers(1994: 1146)

8) 이종훈·한면희(2002: 137)는 “과학기술은 당면한 과제는 항상 안전과 통제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며, 그 자체만으로는 성장에 주안점을 둔 보수적 환경주의로서 환경관리와 자연보전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비판적 감시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은 인간중심주의의 집단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주장한다.

5) <http://alcor.concordia.ca/~raojw/crd/reference/reference001377.html>

6) Opdam(2006: 322)

인간외의 대상에 대한 이용을 가능케 한다. 존재론적으로도 인간과 그외 자연대상은 신의 평가에 의해 차등적 가치를 갖는 존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의식을 갖는 주체적·능동적 모습으로 형상화되나, 자연은 대상화되고 자연의 각 개체는 피동적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도구적 이성을 통해 자연에 인간의 지가 투영된 것을 개발, 그렇지 못한 것을 미개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파악되는 자연은 파악될 하나의 대상일 뿐, 결코 인간과 같은 동일한 존재로서 인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체로서 독립된 존재인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 구도는 지속가능성의 논의에서 보듯, 나와 다른 존재이기에 다른 존재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로 인식될 수 없게 하며, 이러한 점이 서양의 인식론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성 및 생태주의의 한계이다.

#### IV. 성리학의 인식 논인

성리학과 서양철학의 논의는 무신론과 유신론의 입장에 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리학적 세계관은 신을 부정한다. 후에 정약용에 이르러 주재자로서 인격신의 개념을 성리학 경전해석에 이용하였으나<sup>9)</sup>, 성리학의 근본적 시각은 무신론의 입장에 있다. 유신론적 입장에서 세상의 창조는 창조주인 신에 의해 역할이 규정되나, 성리학의 입장에선 태극이 존재할 뿐이다. 태극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본래 그러한 우리의 인식 전에 존재해있던 것을 가정한다. 성리학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체에서 시작되나, 유신론적 입장에서 창조주에 의해 주어진 물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존재론적 근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차이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설정에 차별성을 부여하는 근원이다. 존재론적으로 서양의 경우 물질을 파악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성리학은 태극을 인식해야 할 대상의 근원으로 삼는다.

##### 1. 리기의 존재론적 의미

인식론의 전제는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이다. 탐구의 대상은 존재하는 실체에 대한 것인데, 이와 같은 활동은 파악해야 할 대상이 존재할 때 성립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 보면 성리학에서 파악해야 할 대상은 태극이다. 성리학의 존재론적 근원은 태극이기 때문이다. 태극은 주어진 실체이면서 정신적 활동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본래 그러한 것'으로 '주어진, 기원의 시작이며 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태극은 본래의 그러한 원리에 의해 리와기로 분화된다. 분화된 리와기는 태극의 분극된 형태로, 개체의 본질은 태극의 본질인 리에 있다.

유신론적 입장에서 인식대상은 개체로서 주체와 분리된 물질의 개념으로 일반화된다. 중세시대 중국 선교사들과 편지왕래를 통해 얻은 성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철학에 조예가 깊었던 학자였던 라이프니츠 또한 리와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박상환(2002: 221)에 의하면 그는 기를 서양철학적 개념인 물질, 에테르로 파악하고 있다. 송영배(2000: 269-271)는 마테오리치의 리 개념은 개체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으로 파악한다고 말한다. 유일신의 천지창조를 믿는 마테오리치에게 태극(리)이 천지만물의 근원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무신론적 체계로서 유신론적 입장에 선 이해의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기원이 누구에 연원하는가의 문제는 유신론의 입장에선 만물을 생성하는 의지자가 존재하고, 그에 의해 생성된 개체는 물질이며, 자연에 대한 능동성을 부여받은 인간에 의해 파악해야 될 개체를 의미한다. 존재론적으로도 인간과 개체 대상은 다른 대상이며, 정신작용과 분리된 물질로서 그 역할은 축소된다. 반면 리와기는 근원적 존재인 동시에 의지자로서 파악된다.

김영식(2005: 44-77)<sup>10)</sup>은 리와 기가 포괄하는 개념의 범위와 작용에 근거하여 리와기의 정의가 쉽지 않다고 말하며, 주희의 기 개념이 서양의 물질개념과 아주 다른 것임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리와기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리와기 개념과 등치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은 서양 속에 그와 같은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리는 근원적 무엇을 표현하는 의미소체이고, 기는 그에 대한 당위성의 의미소체로서 표현된다. 또한 리와기는 쓰임에 따라 리와기의 표현형에 근거하여 볼 때, 보편명사와 개체를 뜻하는 명사 두 가지 모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는 소이연의 고로, 기는 소당연의 칙으로 설명된다<sup>11)</sup>. 그리고 리는 때론 본원적 실체로 규정되기도 하고, 기는 생명력이 있는 무엇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9) 송영배(2000: 258)는 “천주실의 등에 나타나 있는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토미즘적 사유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정약용 철학의 핵심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0) 서양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어휘라 말하고 있다.

11) 소이연은 ~한 까닭, 소당연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당위’를 표현한다.

마테오리치와 라이프니츠의 리기 개념에 대한 인식은 리와기의 다의적 의미<sup>12)</sup>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존재론적 근원에 대한 입장차에서 발생한다. 그들의 인식활동 특징인 인간을 주체로 설정하고 자연을 대상화하여 파악해야 할 물질로 보는 존재론적 분리의 사고는 인간중심사상을 바탕으로 대상을 신이 준 물질로 파악된다. 반면 리와기는 분리된 개체 또한 존재적 의미를 보면 리와기를 동시에 갖는 대상이며, 하나에서 나온 동일한 산물이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대상의 차이는 인식의 객체에 대한 다른 의미규정을 갖게 되는데, 성리학은 존재론적 근원의 탐구로, 유신론적 입장에서는 개개사물에 대한 파악의 방향으로 설정된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성리학과 유신론적 견해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리는 만수지리의 성질을 지닌다. 하나로서의 리는 그 자체가 태극이나, 태극은 다시 리와기로 분리된다. 그러나 리는 나누어진다고 하여도, 그 자체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생물체와 무생물은 고유한 리(본원지리)를 품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리일분수 및 기일분수의 입장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즉 리와 기의 동일성은 인간과 자연이 존재론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물성동이론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점은 부정될 수 있다. 인물성동이론은 성리학이 유교적 신분질서 및 가치체계를 규정하는 논리로서, 리는 동일하나, 자연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의 탁함에 대한 논쟁이다. 결국 기의 맑고 탁함에 대한 논의로 해석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기가 다르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존재론적 관점에서 인간과 만물의 관계는 평등하다. 김기현(2004: 11)<sup>13)</sup>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설정에서 자연은 인간을 생육하는 입장에서 있음을 밝히고 있어 자연은 인간을 포용하고, 인간은 자연에 포용되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입장은 태극의 논의에서 그 이유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이 만물의 개념으로 분화될 경우 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평등한 관계로 규정되는 것이며, 만물이 자연의 개념으로 포괄되어 사용되어 질 때는 자연은 본원적 태극으로 환원되어 인간보다 자연이 높은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와기의 존재론적 의미는 개체적으

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서양의 인식론적 입장은 존재론적 의미가 완전히 다른 대상일 뿐이며, 인간에 의해 개발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된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구도는 성리학적 입장에서 자연우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2. 리기의 인식과정

존재론적 대상으로 리와기는 동일한 태극에서 시작했으나, 리가 소당연의 까닭이고, 기는 그에 의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당위적 존재로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의 모든 작용은 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리는 존재론적 의미의 근원적 물음에 대한 답이다. 서옥수(2005: 54)에 의하면 본체문제에 있어 기를 리의 질료 정도로 이해한다는 점은 리와기의 관계에 대해 성리학자들이 리에 대한 파악이 인식과정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모든 사물이 리를 지니고 있으나, 사람에게 내재된 리기를 지칭하는 용어는 성정이다. 모든 대상이 동일하게 리를 갖고 있으므로, 내 자신의 리인 성을 파악하는 것은 곧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깨달음을 얻는 행위로 규정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은 인간에게 내재된 본연의 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리는 언제나 정에 의해 가려져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로 여겨진다. 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단(인의예지)이며, 정은 언제나 리를 방해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내재된 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정을 억제하고, 본연의 사단을 발현하여 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의 사회철학적 성격이 도덕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개인수양을 위한 방법으로 궁리설과 격물치지에 대한 논의가 조선성리학 논쟁의 핵심일 수밖에 없었다. 김영식(2005: 49)에 따르면 주희는 이러한 관계를 다른 개체와 인식주체간 리의 공명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인식주체의 리가 순연한 모습을 갖추므로써 다른 대상의 순연한 리와 조응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리학적 인식활동은 결국 구체적 대상이나 경험을 통해 밖에서 안으로 인식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 아닌 안에서 밖으로의 전개이며, 진리파악을 위한 인식주체인 인간은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내면수행을 뜻하는 것이다. 반면 모든 개체가 파악되어야 할 존재인 서양철학은 실험과 관찰 등의 연역과 이를 통한 합리적 추론을 인식활동으로 삼는다. 즉 밖에서 안으로의 인식적 확장을 통해 지식을 확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존재론적 의미규정 차이에서 발생한 인식활동의 방법이 기 때문이다.

12) 김영식(2005), 조동일(1997)

13) 김기현(2004)은 주역, 설판전의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라는 언명과 '천지는 만물을 생육하는 큰 덕사업을 행하며, 그것을 일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날로 새롭게 펼쳐내는 위대한 역량을 갖는다'는 언명을 바탕으로 인간과 만물이 모두 자연의 자식으로써 존재근원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통해 유가의 유기체론을 설명한다.

위와 같은 인식활동의 차이는 계획적 사고에 욕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질적 동력은 욕망추구에 있다. 계획적 사고와 개발활동 모두 욕망의 충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욕망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위와 같은 관점이 개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철학의 관점에서 신에 의한 자연이용의 정당성을 확보한 인간은 욕망충족을 위해 자연에 대한 무제한적인 추구가 가능하다. 그러한 점은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주의 권능부여에 기초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욕망은 적극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다. 참된 지식의 실체인 리에 대한 인식론적 확장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적극적 자연이용을 통한 욕망추구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인식되며, 그에 따라 욕망충족을 위한 자연의 개발은 부정된다. 오로지 인정되는 자연이용은 노장사상의 무위자연<sup>14)</sup>적 이용에 국한되는 최소한의 이용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리학적 관점의 생태개념은 자연과 인간이 유기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의 구도를 넘어선 자연과 인간의 동일시와 인간생존을 넘어선 자연이용의 어떠한 행위도 부정되는 적극적 개념의 생태주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이룩된 물질문명과 개발행위를 포기하는 사고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성리학적 관점은 적극적 생태개념의 한 예로써 패러다임적 담론의 의의는 갖는다 할지라도 기존의 생활방식 모두를 포기하는, 이로 인한 인간생존을 위협하는 관점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

## V. 최한기<sup>15)</sup>의 운화론

최한기의 기학적 체계는 성리학적 입장과 동일하게 무신론적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된다. 성리학이 형이상자인 리를 궁극적 실체로 보고 관념적 근거로 나아간데 반

해, 최한기는 이를 부정하였다. 최한기는 세상의 존재론적 실체를 리를 제거한, 유형적 대상인 기로서 파악했다. 그는 격물치지에 대한 논거로써 유형적 실체만을 인정했다. 그가 상정한 기는 세상을 가득 채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질의 개념인 실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한기의 기학은 추측과 운화를 통해 설명된다. 추측은 존재론적 대상인 기를 인식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운화는 기의 작용을 의미한다.

최한기는 모든 현상과 존재의 근거, 세계와 우주의 궁극적 실체가 기라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기의 자기운동을 운화라는 말로 표현했다(박희병, 2003: 27). 기의 자기운동인 운화는 일신운화, 통민운화, 대기운화로 구분되며, 세 가지 운화는 승순의 관계에 따라 상호 교섭한다.

### 1. 신기<sup>16)</sup>의 존재론적 의미

성리학의 존재론적 근원이 리에 있다면, 최한기의 근원은 기에 있다. 성리학이 기를 리의 질료로 격하시키고, 형이상자인 리를 존재론적 본체로 인식하는 반면 기학에서는 리의 주재성은 부정되고, 리는 기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으로 의미가 전락한다. 즉 리는 존재론적으로 근원적 실체가 아닌, 개체에 대한 조리정도의 의미이다. 즉 최한기의 기학에서 神은 곧 기다(박희병, 2003: 33). 최한기는 경험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관념적 개념인 리를 경험과 증명이 가능한 물질적 기원인 기의 내재적 실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서옥수, 2005: 54). 즉 관념적 실체인 리는 존재론적 본유관념도 아니고, 기와 존재론적으로 동시에 공존하는 실체이나 시간상으로 기가 있고난 후에 존재하는 기의 속성이다. 따라서 존재론적 근원으로서 리는 오직 형체가 갖추어진 상태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서옥수(2005: 60)에 따르면 리는 결국 기의 운동 - 기운화 -를 설명하는 말일 뿐이다. 즉 선대의 학자들이 무형의 리(체)와 유형의 기(용)를 존재의 본질로 보았다면 최한기는 아직 구체적인 사물로 질화되지 않은 유형의 기(기: 체)와 이미 질화된 유형의 기(器: 用)를 존재의 본질로 보는 기통기국<sup>17)</sup>의 입장이

14) 노장사상의 핵심인 무위자연은 다음의 예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새가 물을 먹는 행위는 갈증이 나타난 시점에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자연이용의 행태이다. 새의 행위는 자연을 이용한다는 관념보다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행해진 최소한의 개념이다.

15) 김용옥(1990: 48)에 의하면 이 양자 사이의 단절은 경학사상사적 단절이 아니라, 문명사적 단절이며, 그 단절을 결정지우고 있는 것은 미셀푸코의 말을 빌리자면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디스코스(Discourse)에 속한다는 사실인 것이다. 그것은 두개의 다른 패러다임이며, 두개의 다른 에피스타임인 것이다. 박희병(2000: 16)은 최한기가 조선의 전통적 학문방법론을 전복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6) 손홍철(2003: 144)에 의하면 신기는 '순환하고 변화하는 기자체'를 의미한다

17) 기통기국(氣通器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리통기국(理通氣局)을 설명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리통기국에서 리는 모든 사물에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근원이다. 그러한 근원이 기(형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으로, 리는 모든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나 기의 차이에 의해 국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통기국은 리의 위치에 기를 놓은 것이며, 器를 사용한 것은 氣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에 있다기보다 의미의 전달을 위한 구별이라 생각된다.

다(서옥수, 1995: 65).

따라서 존재론적 근원의 의미로 파악해야 할 대상은 기일뿐이며, 기일분수의 관점에서 또한 모든 대상은 동일한 존재이다. 또한 앞절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를 살펴보면 기의 운동법칙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성리학적 존재론과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점이며, 기를 통해 본다는 입장은 존재론적 개체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서양철학의 개체 파악의 방법론적 관점과 비슷하나 개체들은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점은 서양의 존재론적 의미와 다르다. 즉 구체적 대상을 인식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관념에서 실체로의 접근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 2. 추측

최한기가 파악해야 할 대상으로 오직 기만을 상정한다는 것은 유형의 실체만이 파악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소극적 의미보다 인식과정 상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최한기가 바라본 조선후기는 진부한 형이상학적 관념적 논쟁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다. 그에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체인 리에 대한 논쟁은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작위적 해석을 통한 소모적 논쟁일 뿐이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실체인 기에 준하여 진리를 파악하는 인식론을 전개한다. 최한기의 이러한 사고는 \*대학의 격물을 구체적 대상에 대한 탐구로 해석하고, 자신의 추측론의 이론적 연원으로 삼은 것이다(이현구, 2003: 258). 즉 인식론적 대상이 실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최한기의 인식론적 활동은 추측이다.

추측은 독립된 객관세계의 이치를 인간의 인식활동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마음은 추측하는 이치가 있지만 인간의 마음과 독립한 객관세계는 '유행'하는 이치가 있다. '유행의 이'는 객관적 기의 운동법칙을 가리키고 있으며, '추측의 이'는 인간의 사유, 즉 추리와 판단을 가리킨다. 객관적 세계의 법칙은 기의 운동 그 자체로서 운동과 법칙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이 법칙은 인간의 인식에 대하여 절대적 진리이다(이현구, 2003: 259). 결국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소재인 인간과 자연은 - 동일한 기의 작용 - 기의 본질적 의미에 의해 동일한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인간은 외부세계에서 펼쳐지는 유행의 경험을 추측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확장한다. 그러나 \*같은 기이지만 추측은 경험이 있고 나서 생기는 것이므로 본래 내 마음에 갖추어진 것이 어떤 계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이현구, 260). 이러한 입장은 성리학적 관점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리의 발

현의 과정을 통해 인식을 확장시키는 반면 최한기의 입장은 경험을 통해 그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바로 이러한 최한기의 경험주의적 견해에 의해 최한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그를 경험주의자로 평가하고 근대적 사상의 맹아라고 평가한다.

최한기에게 인식의 주체는 신기로 표현된다. 신기는 신체의 모든기관, 감각을 담당함으로써,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한기는 팔 다리 등과 같은 신기가 모두 인식의 주체라는 의미보다는 몸 중의 어떤 신기가 담당하고 있는 추측의 기능을 인식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서옥수, 2005: 107-108). 그러나 객관세계의 유행하는 이치가 절대적 진리이고, 추측을 통한 인식론적 사유는 자연질서의 순응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보면, 분석적 인식이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배제한 채, 자연과 순응하는 형태를 보이는 모든 동식물의 자연적응의 모습 또한 객관세계인 운화의 본성이며, 넓은 의미에서 동식물 또한 신기의 주체적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신기라는 개념의 내포 범위는 운화하는 기의 당위적 조리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이고(서옥수, 2005: 110), 인간만이 인식의 유일한 인식의 소유자라고 말하지 않는다(서옥수, 2005: 11)는 사실은 자연의 섭리 앞에 생명체는 유행지를 따라야 하는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보유한 존재일 뿐이다. 또한 인식은 인간에 의해서 파악되는 외부 세계에 관한 이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모든 교감을 의미한다(서옥수, 2005: 112)는 점에서 생명체에 대한 동등한 입장을 최한기의 인식활동과정에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전술한 논거들에 비추어 볼 때, 최한기는 인간과 생명체를 존재론적으로 평등한 대상으로 여긴다. 또한 그가 파악한 인식이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인식의 주체적 기능이 인간과 존재론적 개체인 생명체 모두 지니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기일분수의 관점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만물이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는 사고에서 최한기는 생명을 가진 존재만을 인식론적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생태적 개념의 대상의 축소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생명체와 무생물의 입장과는 다르다. 서양철학의 인식론적 논의에 의하면 인간을 제외한 여타의 존재는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존재론적으로도 인간과 다른 대상이다. 그러나 최한기의 인식론의 논의에서 보이는 내용은 인간과 만물의 대상이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아래 지각하고 생존을 위한 활동 자체를 인식의 주체적 기능으



로 본 점에서, 인식 주체로서의 생명체의 상정은 당연한 것으로, 그의 논의에서 무생물을 급진적 생태사상에서 논의하는 것과 같이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지향하는 바는 인간과 만물의 평등적 관점의 중심에서 인식론적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성리학의 리일분수 및 리통기국의 입장과 최한기의 기일분수 및 기통기국의 차이에서 존재론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성리학은 인식주체로서 인간을 그리며 이를 통해 동질적 존재인 자연 인식에 대한 논의인데 반해 최한기는 인식주체로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로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생태개념과 관련지으면 생태적 개념의 대상에 대한 능동적 위치부여라는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최한기는 추측으로 얻은 지식의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으로서 자연의 법칙인 유행을 근거로 상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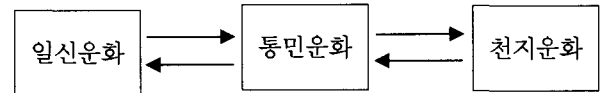
### 3. 운화와 승순

기의 자기운동인 운화는 천지운화, 통민운화, 일신운화로 구분된다<sup>18)</sup>. 그런데 이러한 세 운화는 승순의 관계에 의해 상호 교섭한다. 승순은 깨우침의 구조를 나타내는 순서라 할 수 있다. 즉 일신운화를 알아야, 통민운화를 알 수 있고, 궁극적으로 천지운화를 깨우쳐 천인운화를 이룰 수 있는 단계적 절차가 승순이다. \*운화의 의미는 우주에 두루 퍼져 막힘이 없으며 모든 사물이 본성대로 완전하게 갖추어지는 상태와 변화라 할 수 있으며, 간단히 본체인 기의 유행이라 할 수 있다(손홍철, 2003: 143). 천지운화는 우주적·자연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기의 유행을 가리키는 말이며, 통민운화는 사회적·인민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기의 유행이고, 일신운화는 인간 개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기의 유행이다(박희병, 2003: 29).

앞장의 추측지리와 유행지리에 대한 논거에서 인간인식의 판단근거는 유행지리라 설명했다. 유행지리는 기의 객관적 세계 속의 이치이다. 그런데 유행지리는 기의 운동이라는 면에서 운화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한기는 인식주체가 객관적 세계의 실체와의 패러다임적 일치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유행지리의 운화는 또 다른 각 단계별 판단기준이 작용함을 중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식은 인간에 의해서 파악되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사이의 모든 교감을 의미한다(서옥수, 2005: 112). 즉 인식의 준거가 승순의 과정을 통해 자연의 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판단의 준거로서 자연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식과정에서 운화의 특징은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과 궤를 함께 하며 승순의 관계를 형성한다. 각 운화를 파악해야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천인운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출처: 김용옥(2004) p. 79의 그림 수정.

최한기의 철학적 핵심개념은 운화 또한 다른 성리학적 사상의 전개와 동일하게 체, 용의 관점에서 전개한다. 운화의 체로서 자연을 말하고, 운화의 용으로 당연을 말한다. 여기서 체의 자연은 인간이 간섭할 수 없는 필연의 질서를 의미하고, 용의 당연은 인간이 자연을 본떠서 만든 사회적, 도덕적 규범들을 의미한다(서옥수, 2005: 119). 이러한 점은 성리학 체용(리기)론이 리기의 구도로 표현되고, 인간의 사회 및 도덕적 규범이 리의 발현인데, 최한기는 기만이 오로지 세상의 근원이라고 한 점에서, 이러한 사고가 전개된다. 즉 기의 구체적 형태인 자연과 그의 작용인 유행지리를 바탕으로, 인간이 추측의 인식 과정을 통해 자연을 본떠 만든 사회적 산물이다. 즉 이러한 추론의 원인은 변하지 않는 질서인 자연과 진리의 개념이고, 자연적 질서를 인간사회에 접목한 것이 제도로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 할 당위를 갖는다. 인간사회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자연질서의 표현형인 것이다. 따라서 제도와 도덕의 판단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자연에 있다.

자연이라는 의미 속에는 항상 인위적 개입이 저지된 '있는 그대로의 순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연은 조잡성이나 미완의 불완전성의 의미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의미, 즉 인간이 절대적으로 모방해서 따라가야 하는 필연의 매커니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서옥수, 2005: 120). 따라서 자연의 유행지리를 표현하는 천지운화는 반드시 따라야 할 법칙이다. 이러한 의미로 보면 전 세계의 도덕과 사회적 규범은 궁극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보편적 입장을 볼 수 있다. 즉 그가 볼 때 자연이란 그 자체가 완전한 질서로서 오류가 있을 수 없으나, 추측을 통해 파악한 인간의 인식의 오류에 의해 자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그가 격물치지의 이

18) 박희병(2003: 28) 천지운화=일기운화=대기운화, 통민운화=전민운화=인민운화.

해에서 성리학적 방법을 버리고 실체로서 파악하려 했다는 사실과 형체를 지닌 개체인 기로써 인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완전한 질서와 인간의 오류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가 볼 때 자연은 당연과 부당연의 기준으로 인간행위에 대한 기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속가능성 및 생태사상의 한계인 인간중심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자연에 근거하여 설정한다는 점이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인식론적 논의를 통해 서구 생태개념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성리학, 운화론의 생태적 개념을 분석하여,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입각한 생태주의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적 시각의 제시에 목적을 두었다. 서구의 인식론은 개체와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분리하는 사고를 보이나, 성리학 및 운화론의 입장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사고를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중심적 사고체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사고체계의 바탕은 유신론과 무신론의 입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유신론적 입장에서 창조주는 인간과 만물의 생성자이며, 신에게서 부여 받은 권능을 통해 자연이용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창조주에 의한 생성은 인간과 다른 개체를 존재론적으로 다른 개체로 상정하며, 신에게서 받은 권능을 바탕으로 인간을 제외한 다른 대상들은 존재론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간생존을 위한 자원으로 파악될 뿐이다. 반면 성리학 및 운화론은 무신론적 입장에 있다. 본래적으로 그러한 태극이 있을 뿐이었고, 태극의 본래적 성질에 의해 분화된 존재로 인간과 만물이 나누어져 있을 뿐이다. 또한 성리학 및 운화론의 관점에 의해 리와기를 논의의 중심에 세우나, 본질적으로 모든 개체가 리와기를 갖고 있는 존재로 상정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과 만물이 다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이용에 있어 존재론적으로 모든 대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은 부정된다.

생존에 대한 생명의 역동성인 개발에 대한 관점을 욕망이라는 구도아래에서 분석한 결과 성리학적 입장에선 본연의 리를 탐구하기위한 방법으로서 욕망의 추구는 곧 부정되어야할 존재로서 욕망추구를 위한 적극적 의미의 개발 및 자연이용을 부정한다. 존재론적 의미에서도 개체로서 자연대상은 평등한 존재이나, 만물이 하나의 자연으로 포괄될 경우 본원적 태극으로 환원되어 인간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성리학적 특징은 자연이용은

무위자연과 같은 개념으로 축소되어 개발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위치는 부정되는 급진적 생태개념의 전개로서 현재까지의 생활방식의 전반이 자연으로 회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운화론의 생태개념을 보면 기일분수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은 동질이며, 관계는 평등한 존재로 규정된다. 그러나 인식주체에 대한 논의에서는 생명체만이 인식주체로 상정되고 무생물과 같은 자연대상물은 제외되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어, 생태적 개념의 축소가 발생함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인식주체는 관점에서 생명체를 인식주체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일 뿐,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자연과 인간에 관계는 성리학적 관점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자연이용과 관련되는 욕망의 추구에 있어 운화론은 성리학과 다른 시각을 전개한다. 운화와 승수의 개념 속에 욕망의 추구는 자연의 법칙인 천지운화의 자연법칙 아래에서 긍정되어진다. 욕망추구가 인간생존과 관련된다는 점을 인식한 최한기는 생존을 위한 욕망추구는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욕망추구를 정당화했다. 즉 자연이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천지운화의 틀 속에서 정당성의 범위에 대한 가치기준은 자연에 있고, 그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현재의 지속가능성이 인간중심적 사고의 견지에서 자연이용의 기준이 인간의 가치기준에 있는 반면, 운화론은 자연이용의 정당성이 자연에 두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생태개념의 도출을 위한 기본적 시각과 방향에 대한 논의는 제시하고 있으나, 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실천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인식론에 근거한 생태계획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BS0157)

## 참고문헌

1. 김광웅. 1996. 『방법론 강의』, 박영사.
2. 김기현. 2004. “퇴계의 理 철학에 내재된 세계관적 함의”, 『퇴계학보』 116 : 1-66.
3. 김영식. 2005.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4. 김용옥. 1994. 『독기학설』, 통나무.
5. 김용옥. 2004. “측인에 나타난 혜강의 생각: 독인정설”, 『대동문화연구』 45 : 63-100.
6. 김홍순. 2005. “한국에서 지속가능성 이념의 실현양태: 경남지역 시범생태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담론201』 8(1) : 60-90.
7. 이종훈·한면희. 2002.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의 환경철학 모색”, 『철학과 현상학 연구』 19: 135-163.
8. 이증환. 2006. 『택리지』, 이익성 역, 을유문화사.
9. 이현구. 2003. “최한기 사상의 인식론적 의의”, 『대동문화연구』 43 : 253-272.
10. 박채욱. 2004. “칸트의 자연과 기술이성 비판”, 『범한철학』 35 : 285-306.
11. 박상환. 2002. “라이프니츠의 성리학의 이해에 대한 비교철학적 분석”, 『유교사상연구』 16 : 213-233.
12. 박희병. 2003a. 『운화와 근대』, 돌베개.
13. 박희병. 2003b. “최한기 사상에 있어서 자연과 인위의 관계”, 『대동문화연구』 42 : 117-136.
14. 서옥수. 2005. 『혜강 최한기의 세계인식』, 소강.
15. 손홍철. 2003. “혜강 최한기의 기운화론으로 본 자연관”, 『동방학지』 120 : 125-172.
16. 송영배·금장태. 2000. 『한국유학과 이기철학』, 예문서원.
17. 임형택. 2004. “정약용의 경학과 최한기의 기학: 동서의 학적 만남의 두 길”, 『대동문화연구』 45 : 1-19.
18. 전영옥·이상문. 2004. “한국 전통도시의 생태적 계획원리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2) : 7-20.
19. 최영진·이행훈. 2004. “최한기 운화론의 생태학적 해석”, 『대동문화연구』 45 : 119-139.
20. 한면희. 1994. “환경철학의 세계관과 윤리: 인간중심주의 대 생태중심주의”, 『철학연구』 35 : 327-355.
21. May, J. 1971. “한국계획가의 가치관과 기법”. 『도시문제』 6(3) : 58-68.
22. Opdam, Paul, SteingrÖver, Eveliene. & Rooij, Sabine Van, 2006, “Ecological networks: A spatial concept for multi-actor planning of sustainable landscap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5 : 322-332.
23. Willers, Bill, 1994, “Sustainable Development: A New World Deception”, *Conservation Biology* 8(4) : 1146-1148.

---

\* 접수일 : 2007년 4월 17일

■ 3인 익명 심사필